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이소라, 팝 리메이크

‘마이 원 앤드...’ 발표

가수 이소라가 팝을 리메이크한 음반 ‘마이 원 앤드 온리 러브(My one and only Love)’를 발표했다.

이소라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리메이크 음반에는 작곡가 이승환이 편곡하고 영국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마스터링 작업을 마친 11곡의 팝송이 담겼다.

타이틀곡은 가벼운 멜로디에 슬픈 노랫말이 어우러진 길버트 오설리반의 ‘Alone Again’으로 이소라는 원곡에 가깝게 노래를 소화했다.

또 마마스 앤 파파스의 ‘Dream A Little Dream of Me’ 아트 가평클의 ‘Two Sleepy People’ 등이 실렸다. /연합뉴스

황신혜

새 수목극 ‘즐거운 나의집’

김혜수

독기 품은 여자

상처 깊은 여자



“다른 드라마에 있는 여성들의 대결구도를 보면 당하 기만 하는 착한 여성과 악하기만 한 못된 여자가 등장하 잭요. 우리 드라마는 단순한 선악구조가 아닌 게 매력 이예요.”(김혜수)

“지금껏 맡아본 어떤 역할보다도 강하고 독한 성격이 예요. 시청자들에게 욕먹을 반반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황신혜)

오는 27일 첫 방송을 앞둔 MBC 수목드라마 ‘즐거운 나의 집’(극본 유현미, 연출 오경훈 이상준)은 치열한 부부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결혼 10년차 부부와 남편을 죽였을 지도 모르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멜로와 미스터리를 혼합 한 독특한 형식으로 담는다.

여주인공 진서 역을 맡은 김혜수는 “진서는 당하기만 하고 눈물만 보이는 그런 여자는 아니다. 밝고 따뜻한 모

것이 많을 것 같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드라마를 통해서 결혼에 대해 배우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피상적인 것들이 아닌 좀 더 현실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신혜가 맡은 윤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능적인 매력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항상 빼앗기기만 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여성이다. 특히 운택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 진서에게 첫사랑 상현을 빼앗겨 질투에 휩싸여 있다.

황신혜는 “윤희는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은 꼭 가져야 하는 강한 욕망을 가진 인물이다. 그래서 의상도 과격적이고 강렬한 느낌을 주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며 “시청자들이 처음에는 못된 여자라고 욕을 많이 하겠지만 나중에는 캐릭터의 배경을 이해하고 사랑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고 독한 성격 욕먹을 준비 끝났다”

습을 가진 사람이니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이지만 이 여자에게도 친구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가 있다”며 “복잡한 진서의 감정을 깊이 있고 현실감 있게 보여 줄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혜수가 맡은 진서는 잘 나가는 정신과 의사이지만 오랜 친구 윤희(황신혜)의 음모로 남편 상현(신성우)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윤희의 남편 은필(김갑수)의 죽음에 윤희가 연루돼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고 이를 밝히기 위해 나선다.

김혜수는 “부부 이야기와 불륜을 그린 다른 드라마들이 착한 주인공이 악한 인물에게 당하고 살다가 결국 참고 산다는 줄거리를 담는 게 싫었다”고 말을 이어갔다.

현재 영화배우 유해진과 연인 관계인 김혜수는 결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드라마 촬영을 통해 배우는

“착하기만한 여자 식상 현실감 있게 그려갈 것”

“대본을 받자마자 인물에 몰입이 됐을 정도로 대본이 탄탄하다”고 말하는 황신혜는 함께 연기하는 김혜수에 대해서는 “처음 같이 해보지만 공통점이 많아 쉽게 친해졌고 연기 호흡도 잘 맞는다. 촬영이 끝날 때쯤 되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밝게 웃었다.

올해 47살인 황신혜는 20대 못지않은 피부와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나이 때 배우로서 설 자리가 많아진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시청자 입장에서 봐도 너무 나이 어린 친구들보다는 좀 더 경험이 많은 배우들이 연기하면 좀 더 깊은맛을 볼 수 있으니 좋지 않을까요?”

젊어보이는 비결에 대해 황신혜는 “내 자신이 풀어야 하는 것을 못 견뎌 해서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음반 들고 온 남자 싸이 5집 발표

“지난 4년의 회로에락이 담긴 음반입니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3)는 군 제대 후 첫 음반이자 2006년 4집 이후 4년 만의 신보인 5집 ‘싸이파이브’를 한 마디로 이렇게 소개했다.

“민간인이 된 가수 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음반을 보고 목이 메었다. 10년차 가수로서 여러 장의 음반을 냈지만 이번에는 각오가 강하다. 흥행 여부를 떠나 후회없이 만들었다. 최고일진 모르나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싸이는 2005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쳤지만 2007년 재입대가 결정되면서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번 음반은 싸이답다. 직설적이고 솔직한 가사로 화제가 됐던 그는 이번 음반을 19세 미만 판매금지로 발표한다. 수록곡 중 싸이의 10년을 직설적으로 되짚어 본 ‘싸군’과 부대에서 양동근과 바라본 서울의 밤거리에 반해 전태만상 밤거리를 담았다는 ‘서울의 밤거리’등 세곡이 문제곡이다. 반면 타이틀곡 ‘라이트 나우(Right Now)’는 가슴을 시원하게 할 ‘싸이 표’ 록 댄스곡이다.

그는 “히트곡 ‘챔피언’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곡”이라며 “2002년 ‘챔피언’을 만든 후 8년간 더 좋은 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 ‘챔피언’이 고맙고 좋으면서도 이 곡 때문에 힘들었다. 트

“챔피언’ 뛰어 넘으려 8년 고민 무대 장악위해 더 과격해질 것”

렌드를 배제한 듯하지만 록을 가미한 것은 공연을 고려한 것이고, 전자음을 넣은 것은 온라인을 고려해 욕심을 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공백기에 강력한 그룹들이 참 많이 나왔다”며 “나의 경쟁력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쇼를 했을 때 무대를 장악하는 무대 매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몸부

림을 좀 더 과격하게 할 생각이다. 이번에는 데뷔곡 ‘새’ 때보다 더 과격한 몸짓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가 데뷔 10년째인데 활동한 개월 수는 20개월이더라”며 “활동 전반은 빈도보다 농도가 짙었다. 이번에는 빈도도 높고 농도도 짙게 여러 곡으로 연말까지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국인의 문화와 정신을 전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과 열정을 모아 주십시오

www.oknwood.co.kr

광남종합목재건축재상사
TEL : 062-652-2935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대지갈비 전문점 민속촌(주)
보쌈족발 전문점 무진주
TEL : 062-222-4815

중앙당 한방병원
TEL : 062-718-2000